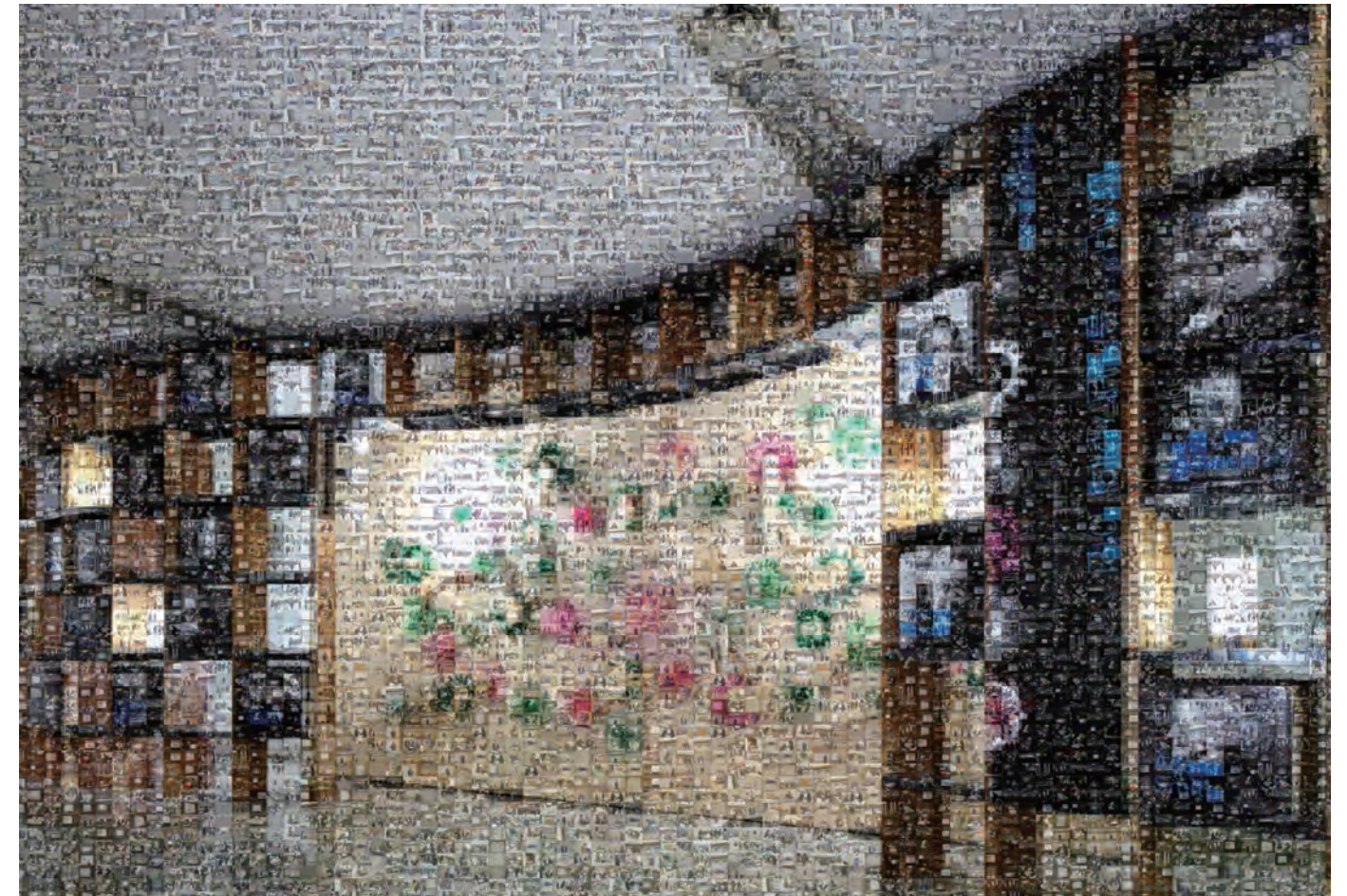


2015년도 책 읽는 대학

- 회원인의 행복한 책 읽기 -



- 01 (독서캠프 : 밀양캠퍼스 무박2일)
'10월의 어느 가을밤, 꿈꾸는 도서관'
- 02 '회원 감동 나눔 전시회' 세 번째 이야기
- 03 독서 낭독회 '책 읽어주는 교수님'
- 04 '회원인과 함께 읽고 싶은 책' 추천서 공모
- (문학캠프 : 통영 1박2일)
05 '늦가을의 통영에서, 4백년 전의 이순신을 다시 만나다'
- 06 독후감 공모 사업 '회원인과 함께 하는 독서왕국'
- 07 독서 낭독회 '책 읽어주는 회원인'
- 08 저자와의 만남
이지성 작가 초청강연



효원 도서관

Pusan National University Library Newsletter **도서관소식지**

CONTENTS

- 04 캠퍼스와 도서관의 역사 주제도서관, 새로운 시대를 열다
- 08 세계의 대학도서관 케임브리지대학 렌도서관
- 10 교수의 서재 나의 서재를 공개합니다
- 12 아름다운 인터뷰 도서관의 새얼굴, 열정으로 가득찬 NEW 사서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 14 도서관을 열어가는 사람들 행정지원팀
- 16 통계로 보는 도서관 예약도서로 살펴보는 PNU도서관 이모저모!
- 18 즐기는 책세상 응답하라 1988, 그때 그 시절의 베스트셀러를 알아보자!
- 20 문화공간 부산을 배경으로 한 영화 특집 도서관 웹사이트에 얼마나 만족하시나요?
- 22 시선집중
- 23 도서관 후원

발행처 부산대학교도서관 발행인 김기혁 발행일 2016. 2. 15.
 편집 김미선, 박지영, 손성동, 최민영 주소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전화 051-510-1810 팩스 051-513-9733 이메일 whitemy37@pusan.ac.kr
 홈페이지 <http://lib.pusan.ac.kr> 디자인 디자인웍스 051-248-1513

<효원 in 도서관>은 도서관 블로그(<http://lib.pusan.ac.kr/pnublog>)에서도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COVER STORY

2015년의 부산대학교도서관은 언제나처럼 활발하고 열정에 가득차 있었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부산대학교도서관을 이용해주신, 그리고 도서관을 위해 노력하신 많은 분들께 고맙다는 인사 드립니다.
 <효원in도서관> 제35호의 표지에 실린 사진은 제1도서관 2층의 "지식의 나무"이며, 각각의 사진들은 2015년도 우리 도서관의 순간순간을 기록한 사진입니다.
 순간이 모여 인생이 되고, 지식을 이루는 나무가 되듯이 도서관에서는 언제나 여러분의 순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부산대학교도서관은 1946년 부산대학교 개교와 함께 설립되어, 일흔 해가 흐르는 세월 동안 효원인 곁에서 묵묵히 성장해왔다. 우리 도서관이 걸어온 시간들을 되짚어 보는 '캠퍼스와 도서관의 역사'를 기획·연재하여 도서관의 소중한 기록들을 나누어보고자 한다.

※ 본문은 2009년 발간한 『부산대학교 도서관사 1946~2008』에서 주로 발췌·작성하였다.

주제도서관, 새로운 시대를 열다

1999. 1. ~ 2006. 2.

1. 주제도서관 개관

부산대학교 도서관은 이용자를 위한 능동적이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999년 주제도서관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연구도서관에 예체능자료관, 과학기술자료관, 학습도서관에 어문학자료관, 인문사회자료관을 배치하고 법과대학과 의과대학에 별도의 도서관을 두어 6개 주제도서관 체제를 구축하여 보다 학술적이고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작을 알리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도서관 이름을 공모하여 연구도서관은 제1도서관, 학습도서관은 제2도서관, 과학분관은 자율도서관으로 변경하였다. 부산대학교 도서관의 주제화는 이용자를 위한 능동적이고 수준높은 서비스의 제공에 초점을 맞추어 주제별로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출발점이 되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제1도서관 현판식



2. 전자도서관(Digital Library) 환경 구축

1989년 도서관 전산화가 시작된 이후 급속히 발전하는 정보기술로 인하여 도서관 서비스 및 이용환경이 크게 변화하였다. 특히 Web 기술을 반영한 도서관 서비스 콘텐츠 개발을 위해 「대학교서관 종합정보화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부산대학교 발간 학술지 논문 원문 DB, 대학사자료 DB, 전자학술 DB 통합검색시스템, 모바일 라이브러리 및 SMS 시스템 등을 구축하였다. 또한 전자도서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주전산기기 교체, 방화벽 도입 및 확충 등 여러가지 사업들이 진행되었다. 2000년 학술·연구 지원서비스를 위한 전문정보시스템서버를 도입하고 서지DB와 목차 초록, 이미지, Fulltext 등을 연동하여 원문의 종합검색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2003년에는 국가지식정보생성 및 유통체계시스템(dCollection) 구축

사업 시범대학(부산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충남대)으로 선정되어 학술정보의 온라인 제출과 시스템 정착, 보급 및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부산대학교 도서관은 사업의 시작단계인 5월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선도적인 운영사례를 제시하였으며, dCollection 시스템 정착 보급 및 활성화 사업의 지원으로 다수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확충하였다. 2005년에는 세부사업인 dCollection 활성화 시범교 사업에 참여하여 부산대학교 내의 15개 연구소와 원문DB 구축 협약 체결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시스템 환경구축을 위하여 2006년부터 Library 2.0 기반의 시스템을 개발하고 유비쿼터스 개념을 도입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예산을 투자해왔다.

제2도서관 개관식



대학사자료관 개교기념 전시회



3. 대학사자료관

대학사 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수집과 관리에 대한 필요성은 1990년대 초반 부터 꾸준히 제기 되었으나 제도적으로 뒷받침된 것은 1999년 대학사자료 실이 신설되고 '효원53주년 특별 사진전'을 개최하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 졌다. 이후 2000년에는 대학사자료실을 대학사자료관으로 명칭을 변경하 고 도서관내 공식기구로 열람과에서 관장하게 되었으며 2003년에는 '공공 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부산대학교 모든 기록물에 대 한 종합적인 관리를 시작하게 되었다.

대학사자료관은 대학 역사에 대한 이해, 애교심,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개교기념 전시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였으며 동문들을 위한 각종 교외 행 사에서도 기념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4. 이용자 서비스

도서관에서는 학습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 1999년에 휴학생 대출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02년에는 학부생 대출권수를 3권에서 5권으로 확대 하였다.

또한 이용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1999년 5월부터 자료실 운영시간을 평일은 오후 8시에서 오후 9시, 토요일은 12시에서 오후 5시로 확대 시행

하였다. 그러나 토요일 근무 시간은 도서관 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2005년 부터 다시 오후 1시까지만 개관하였다. 이외에도 자동대출기 도입, 도서관 이용교육 및 주제별 온라인 참고서비스 실시, 학과별 이용안내서 제작 등 다 양한 이용자 서비스들이 새롭게 도입되었다.

5. 자료개발 및 조직

2003년 갑작스러운 자료 구입 예산 삭감으로 연구, 학습을 위한 단행본 장서 확보에 심각한 부실을 가져오게 되었는데 이것을 해결하고자 도서관 에서는 학교, 교내 기관, 동문, 지역사회와 함께 '도서관 150만권 장서확충 운동'을 전개하였다. 학교로부터는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여 신규 단행본을 추가 구입하였으며, 교내 기관, 대학, 연구소 및 동문과 지역사회 유지들 에게는 도서 기증 및 기탁금을 확보하였다. 특히 상과대학 7회 졸업 동문인 김종갑 회장의 1억원 도서 기금 출연은 도서관 장서 확충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리하여 2003년 121만권에 불과하던 도서관 장서량이 2004년에는 125만권, 2005년에는 132만권, 2006년에 밀양대학교와 통합하면서 드디어 장서량 150만권을 넘게 되었다.

한편 자료조직에서는 그 동안 KDC로 분류하던 동양서를 2000년부터

DDC 체제로 전환하였으며 이때부터 도서관에서 입수되는 모든 자료는 DDC 분류체계를 따르게 되었다. 그리고 2001년 고전자료실, 2002년 북한자료실, 2004년 사학과, 음악학과,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6년에는 인문대학 자료실 비치자료에 대한 서지 DB 구축 작업을 완료하여 교내 소장 자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6. 밀양대학교와의 통합 준비

2005년 3월에 부산대학교와 밀양대학교간 통합합의각서를 체결함으로 써 당해 4월부터 도서관에서도 통합 준비 작업을 시작하였다. 기본방향은 업무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중앙집중식 업무 체계로 운영하기로 하고 수 서, 정리, 전산 업무는 제1도서관에서 통합 운영하고 밀양대학교 도서관은 나노생명과학 분야 주제도서관 체제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통합작업은 약 1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두 대학 도서관 사서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 으로 2006년 3월 성공적으로 통합 작업이 마무리 되었다.

한편 두 도서관간 통합을 통해 중복 구독 자료 조정에 의한 예산 절감(8 천 9백만원)과 대구구조개혁지원사업(약 9억9천만원) 지원을 통한 장 서확충 및 전산시스템 교체, 열람환경 개선 등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

도서관 150만권 장서확충 운동



지식을 보관해 두세요

**세계수준의
부산대학교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도서관에
투자하십시오!**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
캠브리지, 옥스퍼드, 도쿄....
훌륭한 도서관이 없었다면
그 명성은 불가능하였을 겁니다.

**21세기 세계 수준의
부산대학교를 향한 飛上!
도서관에서 시작됩니다.**

◀150만 장서확충 운동 전개▶

1. 사업내용
부산대학교는 21세기를 맞아 한국을 대표하 는 세계 속의 명문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이에 도서관에서는 "도서 150만권 확보운동"을 시작합니다. 양질의 도서가 확보될 수 있도록 동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2. 목표량 : 30만여권(연 도서관 장서 수: 121만권)
3. 동참방법 : 가) 발전기금 기부 나) 자료기증
4. 참여대상 : 동문 및 단체, 기업, 연구소, 학회 등
5. 수집기간 : 2003. 10. 1 ~ 2005. 12. 30
6. 기타 자세한 문의 : 051) 510-1803 ~ 5
부산대학교 도서관 정보개발과 자료개발실 (<http://pulip.pusan.ac.kr>)

부 산 대 학 교 도 서 관 장



800년 역사에 빛나는 지식의 전당

케임브리지대학 렌도서관 (Wren Library, University of Cambridge)

지상의 위대한 도서관 최정태 지음 | 한길사 | 2011 | 351 p

부산대학교도서관 소장정보 제1도서관 3층 인문사회자료관 [HDM 027 최73자A] 나노생명과학도서관 4층 단행본실 [CM 027 최73자A]
본 내용은 원본 도서의 일부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으로 원본 도서에는 나머지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속명의 라이벌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학교 역사가 길어야 100여 년에 불과한 우리나라 대학들이 '지상의 과제'로 노벨상 하나 확보하기 위해 목을 메는 데 비해, 케임브리지 대학이 배출한 노벨상 수상자는 이미 81명이나 된다. 하버드대학 43명, 옥스퍼드대학 40명의 두 배로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대학도 범접하지 못하는 수치다. 도서관도 예외가 아니다. 하버드가 90여개의 도서관을 갖췄다고 그 규모를 자랑할 때도 케임브리지와 옥스퍼드는 120개, 107개라고 응수한다. 그들의 눈으로 보면 세상에는 단지 서로만이 존재할 뿐이고, 태생부터 숙명적으로 만난 선의의 파트너이자 양보할 수 없는 영원한 라이벌만 있을 뿐이다. 영국은 물론 전 유럽이 지켜보는 가운데 치러지는 두 대학 간 조정경기는 하버드·엠아이티, 게이오·와세다, 고려대·연세대 경기 이상으로 온 국민의 관심사일뿐더러 반드시 이겨야 하는 싸움이다.

800년의 역사, 근대 학문의 요람

2009년 건학 800주년을 맞이한 케임브리지는 1209년 옥스퍼드 출신 학자들에 의해 설립되었다. 공인된 것은 아니지만, 두 명의 옥스퍼드 학생이 청녀를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처형되자 옥스퍼드 교수 몇 명이 항의하는 뜻에서 '달마가 동쪽으로 가듯' 동으로 자리를 옮겨 새로운 대학을 설립했다. 그 대학이 오늘날 케임브리지이다. 케임브리지대학은 누가 뭐래도 근대 학문의 요람이 아닐 수 없다.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과 진화론을 주창한 찰스 다윈을 위시 해서 워즈워드·바이런·밀턴 등의 낭만파 시인들, 베이컨·러셀·무어 등의

철학자, 하버드대학 설립자 존 하버드 목사, 그리고 81명에 달하는 물리·화학·생물·의학 등 각 분야에 걸친 노벨상 수상자들과, 이론물리학과 박병 우주론을 설파한 스티븐 호킹 등은 케임브리지대학 뿐만 아니라 세계를 움직인 슈퍼스타들이다.

뉴턴과 바이런을 배출한 명문 트리니티칼리지

케임브리지대학의 31개 칼리지 중 가장 큰 트리니티는 1546년 헨리 8세에 의해 창립되었다. 트리니티(Trinity)는 그리스도교에서 거룩한 삼위일체를 뜻한다. 케임브리지에서 가장 매력적인 칼리지로 소문난 트리니티에는 눈에 띄는 인물이 수도룩하다. 뉴턴은 35년을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보냈다. 1669년에 그의 지도교수는 27세의 젊은 제자 뉴턴의 능력이 자신보다 더 뛰어나다는 이유로 수학과 교수직을 물려 주고 은퇴했다고 한다. 뉴턴은 휴식을 취할 때 숙소 앞에 있는 정원을 거닐곤 했다. 1665년 여름, 그는 이곳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중력 이론을 발견했다. 이 자리에 있던 사과나무는 몇 번이나 바뀌고 또 바뀌었다. 지금 있는 사과나무는 1954년 뉴턴 생가에 있던 후대의 나무를 다시 꺾꽂이한 것이란다.

시성 바이런은 여기서 공부할 때, 꿈을 데리고 잔디밭을 거닐고, 날씨가 좋을 때는 분수 아래서 나체로 목욕해 말썽을 일으키곤 했다고 한다. 귀족이면서 독신으로 자낸 그는 트리니티칼리지에 다닐 때 시종 한 명과 한 필의 말을 데리고 왕자처럼 기거했다고 한다. 2층에 있는 그의 방에서 밖을 내려다보면 바이런의 대리석 기념비 바로 앞에 렌도서관이 자리 잡고 있다.

케임브리지의 보물상자 렌도서관

렌도서관은 케임브리지대학에서 중요한 도서관으로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책을 보관하고 있으며, 영국 고전 건축물의 에베레스트로 통한다. 원래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이던 크리스토퍼 렌(Christopher Wren)은 우연한 기회에 옥스퍼드 대극장의 지붕 보수 책임을 맡아 훌륭히 처리함으로써 건축가의 길로 접어들었다. 황폐화된 런던의 도시 재건사업에 참여하여 52개의 교회 건물과 대성당 건축을 진행하다 도서관 건축에 참여했다. 그는 옛 도서관을 헐고 그 자리에 케임브리지대학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물을 짓기로 했다. 다른 작업을 모두 멈추고 오직 이 일에만 몰두하여 1676년 착공한 후, 10년 공사 끝에 1686년 마침내 완공했다. 생리학적으로 물은 머리를 식혀주는 작용을 한다고 했다. 때문에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은 물을 자주 보고 대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유럽이나 미국의 대학 캠퍼스는 강이나 호수와 가까운 곳이 많다. 그러한 환경이 못 되면 도서관 주위에 '지혜의 샘' 또는 '지식의 원천'이라는 이름으로 아름다운 분수를 설치한다. 템즈 강가의 옥스퍼드대학처럼 케임브리지대학 렌도서관도 캠 강과 맞닿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직사각형 석조 건물은 잔디 광장을 중심으로 개방식 열주가 c자로 연결되어 2층과 3층을 떠받치고 있다. 따라서 외형이 서로 다른데도 여러 건물이 하나로 통합한 듯 균형이 잡혀 있어 우아하면서도 근엄해 보인다. 고대 체육관과 흡사한 이 웅장한 도서관을 설계할 때, 렌은 르네상스 명장들의 작품, 특히 미켈란젤로가 만든 피렌체의 라우렌치아도서관과 베네치아의 산소비노도서관을 모방했다고 한다. 이 말이 사실인 듯 건물에서는 거장의 분위기가 어렴풋이 풍긴다.

바로크 양식의 탁월한 공간 구조

확 트인 홀은 길이 58미터, 폭 12미터, 높이 11.4미터로 그렇게 큰 건물은 아니었다. '책의 궁전'에는 벽을 따라 직각으로 책장이 줄지어 있고 그 사이마다 책을 쌓은 서고가 c자 형태로 설치되어 있다. 천장은 아무 장식도 없이 단정하면서도 화려하지 않다. 실용성에 주안을 둔 듯 내부 장식은 건축가의 기능주의적 비전을 보여주면서 공간처리를 절묘하게 구성해 복잡스럽다는 인상을 탈피했다. 여러 곳에서 포인트를 주기 위해 11개의 벽감 곳곳마다 장식물을 진열했다. 벽마다 삼면이 둘러싼 박스형 구조와 유럽 대륙의 홀 시스템을 혼합한 구조로, 공간을 잘

활용해 안정감이 있어 보인다.

300만 권이 소장된 렌도서관은 케임브리지대학에서 가장 오래된 보물을 간직하고 있다. 8세기경 아일랜드 수도사의 라틴어 필사본 '사도 바울의 편지'와 트리니티가 간직한 「요한계시록」을 비롯하여 1,250점의 중세 필사본, 그리고 15세기 초기 요람본과 고사본, 1820년 이전에 출간된 5만여 권의 고서, 셰익스피어의 역대 전집, 뉴턴의 개인장서와 연구 노트, 탄생 200주년을 맞이한 찰스 다윈의 초고본, 밀턴의 자필 원고, 러셀의 글, 식물학자들의 성서로 꼽히는 『식물의 역사』(1686) 등등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새로 알게 된 보물 케임브리지대학도서관

케임브리지대학 안에는 개인의 이름을 붙인 칼리지도서관, 패컬티 및 홀 도서관, 연구소 도서관이 술하게 많지만, '케임브리지대학' 이름을 가진 도서관은 이곳이 유일하다. 케임브리지대학의 거대한 중앙도서관에 해당한다. 케임브리지대학도서관은 시내 중심가를 벗어나 시내 강 서편 끝자락에 자리 잡아, 캠퍼스 전체를 상징하는 48미터 타워가 있는 6층 건물로 적갈색의 벽돌, 엄격한 대칭을 한 수직 창문을 가진 도서관 같지 않은 도서관이다. 옥스퍼드 뉴 보들리언도서관을 설계한 자일스 스콧이 1931년 착공해서 1934년에 근대식 건물로 완성했다. 케임브리지대학도서관은 기능상으로 또는 행정상으로 케임브리지를 대표하는 도서관이다. 이곳은 영국의 3대 납본도서관으로 지정되어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발행되는 단행본·잡지·지도·음악자료·기타 인쇄 물을 자동적으로 수집함으로써 2009년 4월, 장서 700만권과 잡지 120만 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 도서관이 수장하고 있는 귀중도서는 『구텐베르크 성서』를 비롯하여 찰스 다윈의 아카이브스, 가톨릭 역사서, 모리선의 인쇄물, 왕립 그리니치 천문대의 문서 등 일일이 예를 들기에는 지면이 너무 부족하다.

The Wren Library, Trinity College
University of Cambridge
Cambridge CB2 1TQ UK
www.trin.cam.ac.uk/library

Cambridge University Library
University of Cambridge
West Road, Cambridge CB3 9DR UK
www.lib.cam.ac.uk



강신의 치의학전문대학원 의료인문학 교실

나의 서재를 공개합니다

“

나의 서재는 쓰고 버린 생각들이

뒤죽박죽으로 엉켜있는

‘생각들의 고물 창고’라고

할 수 있다.

그 창고에는 생각만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온

삶의 경험이 담겨 있기도 하다.

그래서 서재는 지나온 삶을

다시 떠올리는

‘기억의 촉매’이기도 하다.

”

내가 학생이던 70~80년대에는 모두들 큼지막한 가방을 들고 다녔다. 그 속에는 책과 공책뿐 아니라 도시락과 실내화 그리고 체육복과 교련복도 들어 있었다. 김치국물이 흘러 벌겍게 붙어 터진 책들도 있었지만, 뽀뽀한 달력 종이로 표지를 싹 책도 있었고 단풍이나 은행잎으로 멋을 낸 페이지들도 있었다. 열심히 읽은 페이지에는 손때가 묻어 책갈피가 없어도 읽을 페이지를 찾을 수 있을 만큼 표지가 낫다.

책이 무척 귀하던 시절이었고 대개는 서재의 크기가 그 주인의 지적 수준을 말해준다고 믿었다. ‘책 속에 길이 있다’고들 했지만 그 길을 찾아 책으로 상징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책은 지식권력의 상징이기도 했다. 따라서 공부를 직업으로 선택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책에 대한 욕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내가 기회만 있으면 다 읽지도 못할 책을 사 모으는 습관을 가지게 된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그 결과 치과대학 교수치고는 꽤 많은 책을 가지게 되었다.

전공을 구강외과학에서 의료인문학으로 바꾼 것도 책이 많아진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몇 권 남지 않은 치과 의사 시절의 책들, 나이 사십에 전공을 바꿔 떠난 유학 시절에 읽던 책들, 그리고 그 이후 나만의 지적 여정에 함께 했던 책들이 어지러이 섞여 있다. 그래서 나의 서재는 쓰고 버린 생각들이 뒤죽박죽으로 엉켜있는 ‘생각들의 고물 창고’라고 할 수 있다. 그 창고에는 생각만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온 삶의 경험이 담겨 있기도 하다. 그래서 서재는 지나온 삶을 다시 떠올리는 ‘기억의 촉매’이기도 하다.

하지만 분명 어딘가에 꽂혀 있을 책 한 권을 찾는데 며칠이 걸리기도 하는 걸 보면 그 생각과 기억의 다발들에 속하지 못한 소외된 것도 꽤 많은 모양이다. 그런 책들은 생각을 비우고 멍청

히 앉아있을 때 그러니까 내 마음을 채우고 있던 어떤 지향성을 지녔을 때 우연히 발견되고 한다. 마치 서가가 살아 있어서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어떤 책을 숨기기도 하고 드러내 보여주기도 하듯이 말이다. 그리고 보니 서가의 책들은 나름의 질서에 따라 배치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다. 나는 말로 표현하기도 어려운 모호한 기준에 따라 그것들을 대충 분류하여 지금의 위치에 꽂아두었지만, 반복적으로 나의 손길이나 눈길과 부딪치면서 어느새 그것들이 내 신경회로의 일부가 되어 버린 듯한 느낌이다. 그렇다면 서재는 나의 ‘확장된 뇌’고 책들은 그것을 구성하는 신경세포들이다. 그 신경세포(책)들의 연결망은 나의 생물학적 뇌와도 소통한다.

이런 연결망이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서가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나의 클라우드 저장소인 드롭박스에는 1천권이 넘는 전자책과 논문이 저장되어 있어 언제 어디서라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통해 읽고 메모하고 동기화하고 그 내용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도 있다. 이 중에는 미국의 아마존이나 한국의 리디북스와 같은 전자책 제공 업체에서 구입하여 다운로드한 것도 있고 종이책을 절단하고 스캔해서 나 스스로 전자책으로 만든 것들도 있다. 그래서 내 방에는 서재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 하나 있다. 책을 자를 때 쓰는 작두다!

잡은 장거리 출장에 소요되는 시간을 독서에 활용하는 방법을 찾다가 5년쯤 전부터 시작한 일이다. 처음에는 멀쩡한 책을 망가뜨리는 게 너무 아까와 스캔한 책을 다시 제분해 보관하기도 했다. 하지만 무거운 책들을 조그만 태블릿에 담아 들고 다니면서 읽을 수 있고, 종이책 이상으로 메모와 낙서를 할 수 있으며, 각종 사전과 연동해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다는 등의 장점을 경험한 다음부터는 자른 책을 그대로 서가에 꽂아둔다. 이렇게 물리적 서가에 꽂혀있던 정보와 생각과 기억의 연결망이 디지털 서가로 확장된다. 전공을 바꿔 뒤늦게 시작한 공부이고 그나마 학문적 정체성도 모호해 부르는 이름



도 통일되어 있지 않은 의료인문학 또는 인문학을 배우고 가르치다 보니, 서가의 물리적 상태만큼이나 그 내용도 뒤죽박죽이다. 하지만 오히려 그래서 이 공부에 재미있는지도 모른다. 한 분야에서 쓰고 있거나 버린 생각들을 간추려 다른 분야의 생각들과 엮고 거기에 약간의 상상력을 보태면 충분히 새롭고도 의미있는 통찰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리적 서가와 디지털 서가가 연결되어 새로운 정보망을 이루었듯이 그 속에 들어있는 기억과 생각과 통찰의 새로운 연

결망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동아시아의 전통의학과 서양의 생물의학 사이에 개념적 다리를 놓고, 문과와 이과라는 인위적 장벽으로 분리된 인문학과 과학의 통찰들을 깊은 수준에서 통접(統接)시킨다는 목표로 공부한다고 거창하게 말할 수도 있겠다. 지식(읽)과 일상(삶)과 실천(함)을 가로지르는 ‘몸의 공부’라는 목표도 있다. 의사이고 번역학자이며 철학자이기도 한 알프레드 토버가 『면역학적 자아』라는 책에서 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다.

그는 과학이 “사실과 가치의 관계가 진화하는 양상”이라 했다. 뒤늦은 출발에 잡식성 공부이고 방향을 이끌어 줄 권위있는 스승도 안 계시다 보니 깊이있는 공부를 하기가 어렵다는 문제는 있다. 하지만 채워야 할 공백이 많다는 건 그만큼 공부해야 할 것이 많다는 뜻이어서 오히려 좋다. 나의 서재가 ‘확장된 뇌’이듯이 함께 공부하는 동료와 학생들 그리고 엄청난 속도로 확장되고 있는 디지털 정보망이 나의 스승이 되어줄 것이라 믿는다.

도서관의 새얼굴, 열정으로 가득찬 NEW 사서 선생님들을 소개합니다



2015년을 마무리하며,
우리 도서관에 열정으로 똘똘 뭉친
새로운 사서 선생님 두 분이 오셨습니다.
다른 도서관에서 근무하다 오신 두 분이지만,
대학도서관에서의 근무는 처음이라고 하시네요.
활기차고 새로운 도서관을 위해
앞으로의 활약이 매우 기대되는 분들인데요,
어떤 분들인지 이번 소식지에서
한번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경 안녕하세요, 이번에 부산대학교도서관의 새로운 식구가 된 **경동욱**입니다. 부산시 공공도서관에서 근무를 하다가 지난 15년 12월 말부터 부산대 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 안녕하세요, 부산대학교도서관의 새로운 식구가 된 자료개발팀의 **김송아**입니다. 12월 9일자로 도서관으로 발령받아 오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어떤 곳에서 일하셨나요?

경 부산시 공공도서관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부산시 사서직 공채로 들어가서 5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공공도서관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금정구 도서관, 수영구도서관, 북구디지털도서관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김 저는 경기도 과천시 정보과학도서관 어린이실 사서로 일하였습니다.

부산대학교도서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경 부산대학교 도서관은 제가 대학생 때부터 줄곧 이용해 온 도서관입니다. 학생 시절 이곳에서 친구들과 선·후배들과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보다 친숙하고 이번에 부산대 도서관에서 근무를 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김 대학도서관에서 근로학생과 사서실습을 하면서 부산대도서관에 기대하고 왔는데 도서관 환경과 규모가 더 크고 좋아서 놀라웠습니다. 지식의터전인 이곳에서 일하게 되어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도서관에서 현재 담당하는 일은 어떤 업무인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경 현재 제1도서관에서 자료 대출과 도서관 이용증 발급관련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구체적

으로는 타 캠퍼스의 자료를 대출하는 상호대차 업무와, 예약도서 관리, 졸업생 및 휴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 이용자 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이용과 관련한 각종 민원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 저는 현재 자료개발팀에서 동양연속간행물 파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국내잡지부터 전문잡지까지의 구독 선정과 지원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도서관에서 있었던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나요?

경 도서관에서 일을 하게 되어 교내를 지나다 보면 학생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대학원생 친구나 후배들과 간혹 마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평일 도서관 내에서 저를 보게 되면 “이 시간에, 여기에 왜 있느냐”며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습

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근무를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주면 그제야 “아~”하며 이해를 하곤 합니다.

김 도서관에 근무하게 된지 얼마되지 않아서 특별히 생각나는 에피소드는 아직 없어요^^ 앞으로 아마 많은 특별한 일을 겪게 될 것 같네요.

도서관에서 불편하거나 힘든 점이 있다면 허심탄회하게 말씀해주세요.

경 아직까지 얼마 근무를 하지 않아서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공공도서관에서 근무를 하다 대학 도서관으로 오니 시스템도 다르고 근무환경이 바뀌어서 적응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공도서관보다 보다 전문화 되어 있고, 서비스도 다양해서 모르는 점이 많아 처음 민원 응대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업무연찬을 통해 도서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 지금은 업무에 적응하는 중이라, 아직은 불편하거나 힘든 점은 없습니다.

부산대학교도서관 내에서, 또는 개인적인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경 공공도서관에 있을 때는 여러 군데를 옮겨 근무를 하였지만, 여기에서는 앞으로 계속 부산대학교 도서관에서 근무를 하게 될 것인데, 대학 조직 구성원들과 가족과 같은 분위기로 근무를 해 즐거운 직장생활을 해 나가고 싶습니다.

김 저는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대학도서관 사서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고, 이를 부산대학교에서 이루게 되어 영광이고 행복합니다. 아직 제 업무를 완벽히 숙지 못하였기에

우선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고 싶습니다.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경 부산대에서 근무한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잘 모르는 점도 많고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열린 업무에 능숙해져서 누구나 만족하는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자 분들도 도서관을 딱딱한 곳이라 생각하지 않고 편안하게 즐기다 갈 수 있는 곳으로 생각하고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 공공도서관의 어린이실에서 아이들과 놀다가, 대학생들과 만나면서 근무하니 새로운 기분과 함께 활기찬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책만 읽고 공부만하는 도서관이 아닌, 영화도 보고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도서관으로 놀러오세요!



도서관을 열어가는 사람들

열두번째 만남, 행정지원팀

도서관의 파수꾼, 행정지원팀

가정에서 주부의 역할은 무엇으로 비교할까? 아마 그 중요함은 말하지 않아도 잘알 것이다. 여기 도서관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팀이 있다. 사용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고, 전반적인 모든 부분을 지원하는 그들. 언제나 바쁜 그들의 모습을 오늘 만나보자.

01 행정지원팀은

도서관 살림을 책임지는 행정지원팀은 도서관 직원들의 업무지원 및 복무관리, 효율적 예산관리, 물품 계약 및 구입 관리, 1·2도서관은 물론 분관까지 시설과 안전점검, 직원들의 편의를 위한 서무 업무 등 도서관의 파수꾼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도서관은 학생들을 위한 대학의 중추 기관이다. 그 중요한 도서관의 살림을 사는 우리 팀은 항상 한마음으로 우리 직원들의 불편사항과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일을 찾아 지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02 행정지원팀은 어떤 주요 업무를 할까요?

도서관 자료 계약 및 물품 관리

도서구매와 기기 유지 보수 계약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기기의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시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또한 도서관 전체 물품 구입 및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열람실의 열람대와 의자 손상 및 파손, 교체 등 처리 방안을 고민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편의를 위한 소모품 구입까지 책임지고 있다.

효율적인 예산관리

도서관은 부산대학교 부속기관이자 교육기본 시설로써 교수, 강사 및 대학원생, 학부생의 연구와 학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자저널, Web Database, 학술잡지, 단행본 등을 구매, 제공한다. 대학 당국은 학문의 전당으로써의 대학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기 위해 도서관에 상당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것을 집행함에 있어 항상 학생등록금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을 유념하며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해외 전자저널 구매에 매년 40억원이 소요 되는 점을 감안하면, 환율의 등락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매년 말 환율상승에도 불구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집행액을 최소화하고 환율차액에 따른 절감된 예산으로 더 많은 저널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을 지양하고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확충에 집중하고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보안업무와 시설물 관리

도서관 보안업무는 매월 실시하는 사이버 보안, 신규자 보안 교육과 대외비 업무를 담당하므로 실질적인 도서관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그리고 도서관은 캠퍼스와 주제에 따라 6개의 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2도서관은 리모델링을 통하여 학생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깨끗한 시설과 다양한 구성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또한 1도서관 본관 1층은 복합문화 공간으로 리모델링이 예정되어 있어 이용자들을 위한 새로운 문화 공간이 제공될 것으로 본다. 특히, 행정지원팀에서는 구성원들의 안전과 환경을 위하여 항상 도서관 내·외 시설물 및 소방 시설 점검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용자들의 불편 사항이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와 관련 부서에 요청하여 최상의 도서관 시설 유지를 위하여 항상 노력중이다.

도서관 문서접수 및 서무업무

도서관으로 접수되는 대부분의 문서는 행정지원팀을 거쳐서 간다. 내부나 외부에서 접수된 문서들을 분류하고 관련부서로 보내는 업무를 담당

하고 있다. 크게는 정보개발과, 정보운영과, 법학도서관, 의생명과학도서관, 나노생명과학도서관으로, 작게는 13개의 팀으로 나뉜 각 팀들의 업무를 파악하고 문서를 배치시킨다.

그래서 각 팀의 업무성과와 배치된 직원들의 세세한 업무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편집배원이 주소를 파악하여 우편을 배달하듯이 접수 문서를 배부하고 있다.

그리고 도서관 구성원들의 교육, 복지, 복무, 안내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관련 서류들을 취합하여 본부로 보내거나 복무에 필요한 부분들을 체크하고 관리하고 있다. 도서관의 각 구성원들이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팀원들의 한마디

항상 우리는 하나다! 아니 우리가 남이! 라고 외쳐보지만 뒤돌아보면 우리가 아닌 남이 되어 있었습니다. 언젠간 남이 아닌 우리가 되고 싶습니다.

(장덕수)

도전을 꿈꾸는 자들이여! 도서관에 모여라. 그대를 향한 일편단심 에너지원이 여기 다 있다. 맘껏 누려라. 그리고 세계를 향해 펼쳐라 꿈의 향한 날개 짓을.

(김형미)

수화기 너머로 다소 딱딱하고 차갑게 들리는 목소리는, 시간의 빠듯함 속에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업무상 특성이오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민)

2015년 1월에 들어와서 벌써 1년이 지났네요. 2015년도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 새해에는 행복한 일 가득하시기를 바래요

(장희정)



예약도서로 살펴보는 PNU도서관 이모저모!

미움받을 용기, 정글만리,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 이 책은 제1도서관 1층에 있는 '예약도서' 서가를 요즘 한창 빛내고 있는 책들이다. '예약도서' 서가는 회원인들의 베스트셀러 코너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용자들에게 인기 있는 도서가 한 곳에 모여 있다. '예약도서'란 다른 이용자가 대출한 자료를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예약하는 제도로, 자료가 반납되면 예약 순위에 따라 우선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2015년 한 해 동안 회원인들은 과연 얼마나 많은 책을 예약하였을까? 그 중 가장 인기 있었던 책은 어떤 것일까?

2015년, 이만큼의 예약 도서가...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부산대학교 도서관 예약 도서 신청 권수는 총 13,459권으로 나타났으며, 이용자가 도서를 예약한 후 대출한 경우는 8,558건(63.6%), 미대출한 경우는 4,901건(36.4%)로 나타났다.



예약도서 Best 10

2015년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예약한 도서는 조정래의 '정글만리'(총142회)로 나타났다. '정글만리'는 90년대 초반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한 작가가 소련의 갑작스런 몰락과 달리 건재한 중국의 모습을 보고 중국을 무대로 소설을 써보아겠다고 마음먹고 20여 년을 꾸준히 고민해 온 결과다. 자본주의 정글 중국을 무대로 세계 각국의 주재원들이 펼치는 경제 전쟁을 그린 내용으로, 정치, 사회, 외교적 측면까지 폭넓게 다루며 현지 상황을 생생하게 담았다는 평가를 받으며, 2015년 이용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

01



정글만리

조정래 | 해냄 | 2013

정글만리는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되어 G2로 발돋움한 중국의 역동적 변화 속에서 한국, 중국, 일본, 미국, 프랑스 등의 다섯 나라 비즈니스맨들이 벌이는 숨막힐 듯 한 경제전쟁을 흥미진진하게 이야기한다.

02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

요나스 요나손 | 열린책들 | 2013

이 작품은 이제 막 백 세가 된 노인 일란이 백번째 생일 파티를 피해 도망치는 현재에서 시작하는 시간과 그가 지난 백 년간 살아온 인생 역정, 두 줄기의 이야기로 진행된다.

03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 (역사, 경제, 정치, 사회, 윤리 편)

채사장 | 한빛비즈 | 2014

역사, 경제, 정치, 사회, 윤리 전 과정을 마치 하나의 천일야화처럼 재미있는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풀어낸다. 이 책은 쉽게 읽을 수 있지만, 그리 단순하고 가볍지 않은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다.

04



미움받을 용기

안건, 일랑 | 인플루엔셜 | 2014

제3의 심리학 거장 '이들러의 심리학'을 처음으로 대중에게 소개한다.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위한 아들러의 가르침'을 '철학자와 청년의 대화' 형식으로 엮어, '어떻게 행복한 인생을 살 것인가?' 하는 인간 본연의 질문에 단순하면서도 명쾌한 해답을 쉽고 재미있게 제시한다.

05



하버드 새벽 4시 반

위, 수영 | 라이스메이커 | 2014

이 책은 하버드의 특별함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분석하면서, 불투명한 미래를 걱정하며 방황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버드식 성공법을 전수한다.

06



총, 균, 쇠

재레드 다이아몬드 | 문학사상 | 2013

진화생물학자인 재레드 다이아몬드는 1998년 풀리처상을 수상한 이 역사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난 역사의 경향을 실제로 만들어낸 환경적 요소들을 밝힘으로써, 인종주의적 이론의 허구를 벗겨낸다.

07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동야, 규오 | 현대문학 | 2012

아무도 살지 않는 오래된 잡화점에서 벌어지는 기묘하고 따뜻한 이야기. 이야기에는 살인 사건도 민원 형사도 없다. 범죄자의 컴컴한 악의 대신 인간내면에 잠재한 선의에 대한 믿음이 있고, 모든 세대를 뒤흔친 감동에 빠뜨리는 기적에 대한 완벽한 구성이 있다.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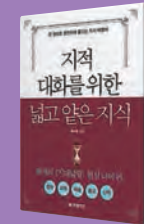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James, E. L | 시공사 | 2012

어린 시절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한 남자를 사랑이 구원하고, 세상을 모르던 여자가 사랑으로 인해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을 통해 결점을 받아들이고 상대방을 위해 변화하는 남녀의 사랑이 책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다.

09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 (철학, 과학, 예술, 종교, 소비 편)

채사장 | 한빛비즈 | 2015

이 책은 세계에 대한 지식을 독자가 쉽게 소화할 수 있도록 세계를 두 가지 영역으로 잘라서 제시하는데 첫 번째 책에서는 현실 세계를 다루고, 두 번째 이 책에서는 현실 너머의 세계를 다룬다.

10



7년의 밤

정유정 | 은행나무 | 2011

이 소설은 7년의 밤 동안 아버지와 아들에게 일어난 슬프고도 신비한 이야기이다. 끊임없는 선택으로 지속되어 나가는 인생, 그 어떤 선택의 순간에도 물러설 곳은 없다. 그러나 그 막다른 곳에서 자신의 모든 걸 바쳐서라도 지켜내고픈 무언가가 있는가?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해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이 책은 비라고 있다.

예약도서 이용방법을 한눈에!

예약 대상 자료

외국서 부산대학교 모든 도서관의 외국서는 예약 가능
국내서 제1도서관의 국내서만 예약 가능(그 외 도서관은 향후 서비스 예정)

유의사항

- 1인당 예약 가능 책수 : 3책
- 1책당 최대 3명까지 예약 가능
- 예약도서 대출 통보(이메일, SMS, APP) 후 대기 기간 : 3일 (통보 당일 포함)
- 예약도서 미대출 횟수가 2회 초과 시 30일간 예약 서비스 이용 불가

※ 도서관의 다양한 알림 메시지를 받고 싶다면, '도서관 홈페이지 - My Library - 알림설정'에 접속해보거나 원하는 메시지 항목과 수신방법(E-mail, SMS, APP)을 개별 선택할 수 있다.

응답하라 1988

그때 그 시절의 베스트셀러를 알아보자!



응답하라 시리즈의 3편인 '응답하라 1988'이 인기리에 방영 중이다. 주인공들을 둘러싼 크고 작은 에피소드와 함께 당시의 역사적인 사건들과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역시 이슈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시절의 출판 동향은 어떠했으며 베스트셀러에는 어떤 도서가 있었을까? 이번 호의 <즐기는 책세상>은 1980년대의 베스트셀러를 주제로 하고 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출판계는 가로쓰기 및 한글표기 등이 정착단계에 들어섰으며, 발행 분야가 전문화되면서 기획 및 제작 스타일에도 출판사의 개성이 분명하게 부각되었다. 또한 신문 등 대중매체에서도 출판인내 지면이 정착화되어 출판 저널리즘이 활성화되었다. 이 시기의 출판은 괄목할 정도로 성장해, 1986년에는 신간 발행종수가 2만 2천여종에, 발행 부수도 1억 63만여 부를 기록함에 이르렀다.

1970년대 중반 이후 베스트셀러의 기준이 수천부에서 5만부 선으로 올라갔으며, 1980년대에 들어서는 출판시장도 이전에 비해 더욱 확대되어 100만 부를 넘어서는 베스트셀러가 등장하게 되었다. 한국 최초의 밀리언셀러는 김홍신의 소설 「인간시장(전10권)」으로, 1981년에 1권이 나온 이후 2년만인 1983년 가을에 100만부를 돌파했다.



인간시장(전10권)
김홍신 지음 | 해냄출판사 | 1981년

5년간 원고지 10,129매 분량으로 집필된 이 소설은 주인공 장충찬의 1인칭 시점으로 서술되는데, 매 장마다 새로운 사건을 접하고 하나하나 해결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부패한 개신교 목사들, 권력에 좌우되는 법관들, 약자를 괴롭히는 조직폭력배 등 우리 주변에서 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들을 주인공이 해결해가는 과정을 그리면서도 주인공의 내적 갈등을 그대로 보여주어 공감대를 형성한다.



태백산맥(전10권)
조정래 지음 | 해냄출판사 | 1989년

1983년 <현대문학>에 원고지 16,500매 연재를 시작으로 1986년 제1부 출간(한길사)과 1989년 완간(전10권) 이후 300만부가 판매되었다. 한반도가 해방과 분단을 맞은 1948년부터 6.25 전쟁 휴전 이후 분단이 고착화된 1953년까지를 배경으로 한 이 책은 '민족사의 매물 시대', '현대사의 실증시대'라 불리는 역사에 정면으로 부딪혀 80년대 최대의 문제작이 된 작품이며, 한국 문학사의 독보적인 위치에 오른 작품이다.



홀로서기
서정윤 지음 | 청하 | 1987년

'홀로서기'는 1981년 서정윤이 영남대학교 학생 시절 '영대문화'라는 대학교지에 발표했던 시다. 이시는 내용의 보편성과 대중성에 힘입어 대구지방을 중심으로 복사본과 필사본이 광범위하게 유포되었고, 1987년 3월 시집이 출간되었을 때는 이미 잠재적인 독자층이 폭발하기 일보직전이었다. 불과 1년만에 시집 최초로 100만 부를 돌파했으며, 이후 4편까지 출간되면서 모두 300만 부 기량 펼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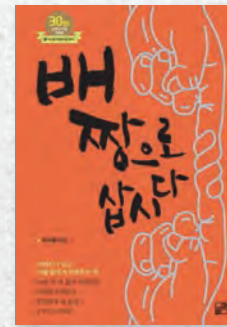
소설 손자병법
정비석 지음 | 고려원 | 1984년

1981년부터 <한국경제신문>에 연재되었던 것을 세 권의 책으로 펴낸 것으로, 작가는 손자병법에 대한 20여권의 해설서를 읽고 춘추전국시대 손무와 손빈, 손무를 오왕에게 추천한 복수의 화신 오자서를 주인공으로 해서 이 책을 썼다. 1997년 3월 고려원이 부도로 문을 닫을 때까지 300만부 이상 팔렸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김우중 지음 | 김영사 | 1989년

1989년 출판된 이 도서는 당시 세계 50대 기업 대우그룹 총수인 김우중 회장의 저서로, 김우중은 이 책에서 젊은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39편의 글에 담았다. 2만부가 이틀만에 다 팔리고 한국출판역사상 여섯 달도 되지 않아 100만 부를 돌파하기는 처음이었다. 23개 언어로 번역되기도 한 이 책은 138만 부나 팔렸지만, 대우가 1999년 붕괴하면서 김우중 신화 또한 무너지고 만다.



배짱으로 삼시다
이시형 지음 | 집현전 | 1982년

1980년부터 1981년까지 약 1년간 <일간스포츠>에 연재한 '배짱철학'이 토대가 된 책으로, TV에 단골로 출연하는 정신과 의사가 스트레스 의학의 대중화를 꾀한 심리학 에세이다. 이 책은 1980년대 내내 180만 부나 팔린 책으로, 국내 출판사상 최초의 논픽션 밀리언 셀러로 기록되었으며, 솔직하고 거침없는 문체로 한동안 우리 사회에 '배짱 신드롬'을 일으키기도 했다.



여자란 무엇인가
김용옥 지음 | 통나무 | 1986년

1985년 11월에 고려대학교 강단에서 펼친 강의 내용을 옮긴 책으로, '여자란 무엇인가'라는 명제를 다룬 도올 김용옥의 저서이다. 강의의 구어체를 그대로 글로 옮겨 놓아 생동감과 박진감이 넘쳐났고, 속어와 비어까지 거침없이 토해내는 김용옥 특유의 파격적인 어투를 그대로 살려 놓았다. 1년도 되지 않아 10만부를 돌파했으며, 1990년대 말에는 30만부를 넘어서었다.

[참고] 한국 출판과 베스트셀러 이임자 지음 | 경인문화사 | 1998년 베스트셀러 30년 한기호 지음 | 교보문고 | 2011년

BU SAN

“고마해라, 마이무따아이가” 부산을 배경으로 한 영화 특집

2001년의 영화 「친구」를 기억하시나요? 장동건의 “고마해라, 마이무따아이가”는 당시의 유행어가 되었지요. 예전부터 부산은 영화의 단골 배경으로 쓰이곤 했는데요, 이번호에서는 부산을 공간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는, 또는 부산 정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영화로 준비했습니다. 아래의 영화는 제1·2도서관 1층 iCOMMONS 내 미디어룸에서 언제든지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인

개요 드라마 | 127분 | 2013.12.
감독 양우석
출연 송강호(송우석 역), 김영애(최순애 역), 오달수(박동호 역) 등
내용 당신의 웃음과 눈물을 지켜드립니다!
“제가 하겠요, 변호인. 하겠습니더”
한줄평 ‘안녕하지 못한 세상, 안녕한 법정 장르가 반갑다’
(유자나 씨네21 기자)



도둑들

개요 액션범죄 | 135분 | 2012.7.
감독 최동훈
출연 김윤석(마카오 박 역), 김혜수(팍시 역), 이정재(뽀빠이 역) 등
내용 10인의 도둑, 1개의 다이아몬드. 목적이 서로 다른 10인의 도둑들이 자산만의 플랜을 세우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줄평 관객의 마음을 훔치는 캐릭터 무비
(김형석 영화 저널리스트)



바람

개요 드라마 | 107분 | 2009.11.
감독 이성환
출연 정우(정구 역), 손호준(김영주 역), 황정음(주희 역) 등
내용 폼나고만 싶었던 학창시절, 다시 돌아간다면... 쪽팔리지 않고 싶었던 18살 정구는 '바람'대로 폼나는 학창시절을 보낼 수 있을까?
한줄평 '건달이 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백승찬 경향신문 기자)



국제시장

개요 드라마 | 126분 | 2014.12.
감독 윤제균
출연 황정민(덕수 역), 김윤진(영자 역), 오달수(달구 역) 등
내용 눈물 흘리며 힘들었던 그때 그시절 오직 가족을 위해 굳세게 살아온 우리들의 위대한 아버지 이야기가 시작된다.
한줄평 '아버지 세대에 주는 위로 혹은 면죄부'
(이은선 매거진M 기자)



올드보이

개요 액션/스릴러 | 120분 | 2003.11.
감독 박찬욱
출연 최민식(오대수 역), 유지태(이우진 역), 강혜정(미도 역) 등
내용 15년의 감금, 5일의 추적. 대결의 끝, 하나는 죽는다! 15년을 기다린 갇힌 남자 최민식과 가운 남자 유지태, 두 남자의 대결
한줄평 '이제 '고전'이라 부르자' (김도훈 영화 킬리스트)



박쥐

개요 멜로/로맨스 | 133분 | 2009.4.
감독 박찬욱
출연 송강호(신부 상현 역), 김옥빈(태주 역), 김혜숙(태주 시어머니 역) 등
내용 뱀파이어가 된 신부, 친구의 아내를 탐하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들의 사랑, 과연 그 끝은 어떻게 될까?
한줄평 '멜로드라마, 피가 좀 섞인 마시멜로 같은'
(이형석 헤럴드경제 기자)

그 외 부산을 배경으로 한 영화

장르 | 러닝타임 | 개봉년월 | 감독

마더
범죄/스릴러 | 128분 | 2009.5. | 봉준호

강철이
드라마 | 108분 | 2013.10. | 안권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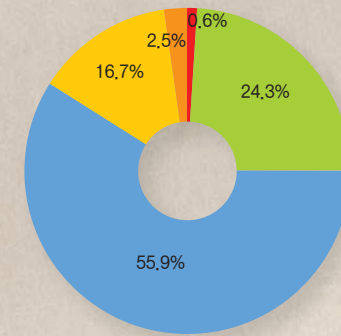
범죄와의 전쟁
범죄/드라마 | 133분 | 2012.2. | 윤종빈

해운대
드라마 | 120분 | 2009.7. | 윤제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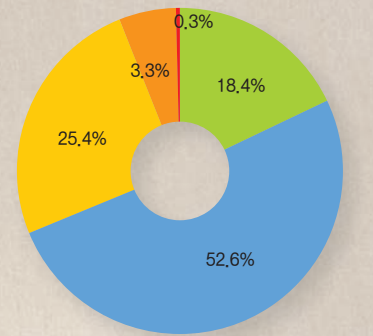
도서관 웹사이트에 얼마나 만족하시나요?

도서관에서는 도서관 웹사이트의 만족도 및 향후 웹사이트 운영 및 개선방향을 수립하고자 우리 대학교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웹사이트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자료 검색 만족도 평가에서는 만족 이상이 80.2%, 웹사이트 만족도 평가에서는 만족 이상의 비율이 71%로 높게 나타났으며, 전반적인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도서관에서는 이를 토대로 만족도 영향에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좀더 나은 웹사이트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자료 검색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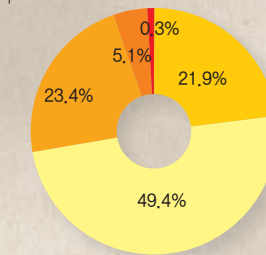


도서관 웹사이트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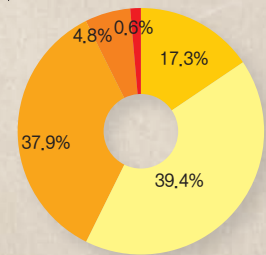


● 매우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 ● 매우불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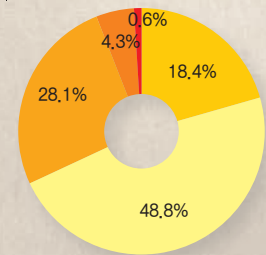
질문1. 편리한 안내정보 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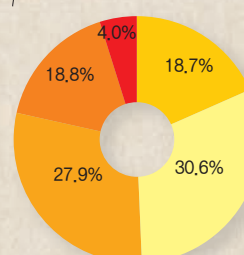
질문2. 안내 및 설명의 충실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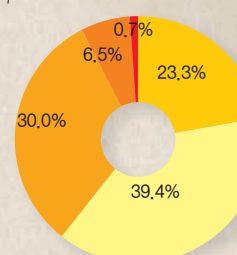
질문3. 정확하고 쉬운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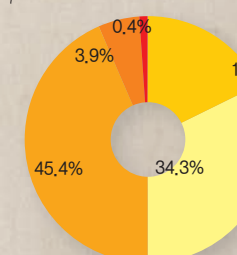
질문4. 웹사이트 처리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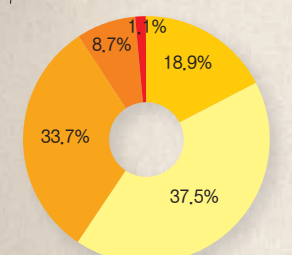
질문5. 편리한 시설물예약



질문6. 신속한 문의 답변



질문7. 디자인 및 인터페이스



● 매우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 ● 매우불만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도서관 웹사이트 이용 중 불편한 점이나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도서관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댓글남기기를 통해 의견을 주세요.
문의 | 도서관 전산지원팀 051-510-1817

2016년 저자와의 만남, 이지성 작가 초청강연 개최



도서관에서는 <책 읽는 대학> 사업의 일환으로, '저자와의 만남: 이지성 작가 초청강연'을 개최했다. 지난 1월 8일 효원산학협동관 101호에서 열린 이번 강연에서는 『독서천재가 된 흥대리』, 『꿈꾸는 다락방』 등으로 유명한 이지성 작가의 강연이 2시간동안 진행되었으며, 200여명의 청중들과 함께 즐거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지성 작가는 특유의 유쾌한 입담으로 강연을 이어나갔으며, 뜨거운 열기 속에서 청중의 호응과 함께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다. 이날 강연을 신청한 학생들 중 선착순 150명에게는 이지성 작가의 신간도서인 『하루 관리』를 배포하였는데, 강연종료 후 진행된 저자사인회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저자의 친필사인과 함께 사진촬영의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도서관에서는 지난 몇 년간 '저자와의 만남' 행사를 통해 많은 작가들의 초청강연을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이와 관련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여 감동공유 프로젝트를 계속할 예정이다.

문의 | 도서관 기획홍보팀 051-510-1810

<박종근박사 문고> 학술논문 공모전 시상 및 발표회 개최



도서관에서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학술 정보 교류 및 지원을 위하여 진행한 『(박종근 박사 문고) 학술 논문 공모전』의 시상 및 발표회가 지난 1월 7일, 제2도서관 1층 오디오룸에서 열렸다. '근대 전환기의 한국과 동아시아'를 주제로 하여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서 대상 수상작은 나오지 않았으며, 최우수상 1편과 우수상 2편이 선정되었다. 최우수상은 최은총(국어교육과) 학생의 '극문학의 전환과정을 통한 극문학계의 근대전환기 설정과 근대 전환기의 의의'가 선정되었으며, 강창규(한문학과) 학생의 '식민지 시대 亡命知識人의 동아시아 연대의식과 문화비전'과 김재영(정치외교학과) 학생 등 3명의 '고려공산당 내 상해파와 이르쿠츠크파의

주도권 경쟁에 관한 연구'가 각각 우수상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논문 공모전은 우과장학회 최영석 회장이 출연한 학술연구지원 발전기금을 바탕으로 진행되었으며, 도서관에서는 앞으로도 논문공모전을 꾸준히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 도서관 기획홍보팀 051-510-1309

12월의 감동 나눔, 독서상독회 '책 읽어주는 교수님', '책 읽어주는 효원인'



도서관에서는 <책 읽는 대학> 사업의 일환으로 독서상독회인 '책 읽어주는 교수님(왼쪽)'과 '책 읽어주는 효원인(오른쪽)'을 진행했다. 지난 12월 23일 열린 '책 읽어주는 교수님'에는 『청춘문답』의 저자인 김승룡 교수(한문학과)와 제자인 오아림 졸업생(한문학과)이 청춘들의 고민에 대해 책을 읽으며 청중과의 교감의 시간을 가졌다. 약 2시간 동안 청춘들에게 흔히 일어나는 연애, 우정, 학업 등 다양한 고민을 책에 실린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 한시(漢詩)를 통해 답을 찾아보았다. 12월 29일에 열린 '책 읽어주는 효원인'에서는 박남진 학생(신문방송학과)의 '만나고, 사랑하고, 이별하다'와 김희주 학생(동물생명자원과학과)의 '육식은 과연 윤리적인가'의 두가지 주제의 낭독이 진행되었으며, 또래들과 함께 청춘을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문의 | 도서관 기획홍보팀 051-510-1810

제1도서관 본관 1층 로비 복합문화공간 조성공사 실시



제1도서관에서는 본관 1층 로비의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2015년 12월 말부터 2016년 2월 중순까지 공사를 실시한다. 1994년에 개관한 제1도서관 본관 1층 로비의 전면 시설 개선에 따른 기획 전시 및 복합 문화 공간 구성을 위해 진행되는

이번 공사는 도서관의 학생 이용 공간을 확보하고, 이용자 편의 및 공간 효율성 향상을 위한 공간재배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2월 중으로 로비 공사가 종료되면 세미나실, 소회의실, 이용자교육실, 상설전시실, 북카페, 미디어갤러리 등으로 새롭게 구성되는 로비 공간을 만나볼 수 있다.

문의 | 도서관 기획홍보팀 051-510-1309

여러분의 후원으로
소중한 자료를 만나고 있습니다



「박종근 박사 문고」의 이용 활성화와
이용자들의 강의, 연구, 학습 지원을 위하여
우과장학회 최영석 회장이 2014년 9월 기탁하신 발전기금으로
약 600여권의 근대 이후 최신 사학자료를 구입하여 소장하고 있습니다.

「박종근 박사 문고」의 최영석 회장 기금도서는
제1도서관 2층 문학예술자료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